

農家調查結果

## 主要 經濟作物의 栽培決定要因 등에 관한 農民意識

金 敏 男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李 成 珪

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調查概要
- III. 마 늘
- IV. 고 추
- V. 양 파
- VI. 要約 및 結論

### I. 머리말

미리 밝혀둘 것은, 이 調查研究는 지난해 9월 주요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우리 농민들의 意識構造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調查의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앞서의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意識」(本誌 第6卷 第4號 附載)에 이어지는 글이라는 것이다.

앞서 分析에서는 經濟作物의 포괄적인 作付體系決定要因, 生産·價格波動의 原因 및 이에 대한 對策, 즉 生産調整의 必要性和 方法 등에 대한 농민들의 意識내지 視角에 주로 초점이 모아졌지만 本稿에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意識」에서 다루지 못한 마늘, 고추, 양파 등 3가지 주요 경계작물의 개별적인 栽培決定要因 등을 좀더 심층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게 될 것이다,

첫째, 마늘, 고추, 양파의 栽培決定要因이 생산농민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재배결정에 따른 이들 경계작물의 栽培動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올해산(84年産) 재배예정 면적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할 것인가(個人別, 部落別).

셋째,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이들 경계작물을 주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가.

이들 調查項目에 대한 조사 결과는 本研究院 「現地通信員」(전국 1,99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難點이 있다. 특히 栽培意向을 나타내는 재배면적조사는 通信員들의 耕地規模가 전국 평균을 다소 넘어서고 있고 경계작물의 地域特化性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조사

는 주로 '意識' 調査가 그 초점이고 또 현지통신원 선정과정에서 경제작물의 主產地가 상당히 고려가 되었으므로 조사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농민들이나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耕作規模나 學歷과 같은 속성에서 보면 농촌사회의 평균수준을 다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 II. 調査概要

### 1. 調査對象者

본연구원의 農政輿論調査를 위한 「현지통신원」으로 위촉된 1,990명 중 「個人기록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통신원을 제외한 1,933명을 調査對象者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道別 分布와 應答率은 <表 1>과 같다.

그런데 조사대상자인 本研究院의 農政輿論調査 現地通信員들은 농촌에서 篤農家로 인정되는 농민과 農村指導所 및 農漁民團體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農村社會에서 여론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地域社會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

### 2. 調査方法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 3. 調査期間

1983년 9월 10일~10월 4일.

### 4. 分析方法

회송된 조사표의 응답내용을 SPSS에 의해 전산처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경작규모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應答者의 意思를 從屬變數로 하여 階層間 比較分析을 하였다.

### 5. 應答者의 階層別 分布

응답자의 연령층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분포는 <表 2, 表 3, 表 4>와 같다.

表 1 應答者의 道別 分布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통신원수(명)	213	111	147	236	199	329	349	273	76	1,933
응답자수(명)	130	60	87	154	130	215	221	179	33	1,209
응답비율(%)	61.0	54.1	59.2	65.3	65.3	65.3	63.3	65.6	43.4	62.5
응답자도별 분포(%)	10.8	5.0	7.2	12.7	10.8	17.8	18.2	14.8	2.7	100.0

表 2 應答者의 年齡層別 分布

區 分	20代	30代	40代	5·60代	計
應 答 者 數(名)	29	174	585	421	1,209
構 成 比(%)	2.4	14.4	48.4	34.8	100.0

表 3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區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應 答 者 數(名)	221	477	445	66	1,209
構 成 比(%)	18.3	39.5	36.8	5.5	100.0

表 4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區 分	零 細 農	小 農	中 農	大 農	計
應 答 者 數(名)	32	256	580	341	1,209
構 成 比(%)	2.6	21.2	48.0	28.2	100.0

\* 영세농(0.5ha 미만), 소농(0.5~1.0ha), 중농(1.0~2.0ha), 대농(2.0ha 이상)

### Ⅲ. 마 늘

#### 1. 마늘의 栽培決定要因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마늘을 재배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그 決定의 背景이 되는 要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응답결과는 <表 5>와 같다. 524명의 응답 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내용은 「他作物보다 收益性이 높아서」로서 전체의 41.0%에 이르고 있다.

생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작물의 생산 자체가 現金收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收益性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商業化的 農業經營의 한 단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늘은 韓國人이 選好하는 食品으로 각종 料理에 양념으로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다른 經濟作物에 비해 販路에도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교적 靚은 收益性, 主産地의 확산경향, 現金作物의 선호 등으로 재배면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過剩生産이 우려되고 있으며 여기에 需要的 非彈力的인 구조 등이 겹쳐 凶豊에 따라서 价格的 騰락이 심한 편이다. 특히 <表 6>에서 보는 것처럼 特化指向作物이라고 할 수 있는 마늘의 재배면적 증가가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물론 昨年(1983年)에 있었던 대부분의 經濟作物의 價格下落시에도 마늘은 꽤 价格안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하였으나 收益性에 대한 농민들

表 5 마늘의 栽培決定要因

구  분		타作物보다  收益性이 높아서	가격동향을 보고	자  家  소  비  및  採  集  用  途  로  用  意  深  切  用  意  深  切  用  意  深  切	단위당 생산량이 많아서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해서	현금화작물로서  販  路  가  廣  闊  用  意  深  切	판매가 용이해서	토질에 알맞아서	수입억제와  充  分  的  公  給  을  위  해	계
평  均		215(41.0)	96(18.3)	61(11.6)	41(7.8)	38(7.3)	31(5.9)	23(4.4)	14(2.7)	5(1.0)	524(100.0)
연  령  別	20대	1(11.1)	4(44.4)	1(11.1)	1(11.1)	1(11.1)	1(11.1)	—	—	—	9(1.7)
	30대	25(37.3)	9(13.4)	8(11.9)	7(10.4)	5(7.5)	4(6.0)	5(7.5)	3(4.5)	1(1.5)	67(12.8)
	40대	111(43.9)	51(20.2)	25(9.9)	19(7.5)	22(8.7)	10(4.0)	9(3.6)	6(2.4)	—	253(48.3)
	5·60대	78(40.0)	32(16.4)	27(13.8)	14(7.2)	10(5.1)	16(8.2)	9(4.6)	5(2.6)	4(2.1)	195(37.2)
학  령  別	국  中  學	46(51.7)	11(12.4)	13(14.6)	3(3.4)	5(5.6)	1(1.1)	5(5.6)	3(3.4)	2(2.2)	89(17.0)
	中  學	87(41.4)	38(18.1)	21(10.0)	18(8.6)	13(6.2)	19(9.0)	7(3.3)	4(1.9)	3(1.4)	210(40.1)
	高  中	76(37.6)	41(20.3)	21(10.4)	18(8.9)	19(9.4)	11(5.4)	10(5.0)	6(3.0)	—	202(38.5)
	대  學	6(26.1)	6(26.1)	6(26.1)	2(8.7)	1(4.3)	—	1(4.3)	1(4.3)	—	23(4.4)
경  작  규  모  別	영  세  농	4(40.0)	1(10.0)	1(10.0)	1(10.0)	0(0.0)	1(10.0)	2(20.0)	—	—	10(1.9)
	소  農	53(51.5)	20(19.4)	5(4.9)	6(5.8)	8(7.8)	5(4.9)	4(3.9)	1(1.0)	1(1.0)	103(19.7)
	중  農	111(42.0)	45(17.0)	30(11.4)	25(9.5)	17(6.4)	17(6.4)	10(3.8)	6(2.3)	3(1.1)	64(53.4)
	대  農	47(32.0)	30(20.4)	25(17.0)	9(6.1)	13(8.8)	8(5.4)	7(4.8)	7(4.8)	1(0.7)	147(28.0)

단위 : 명(%)

表 6 1981~83년간 마늘 재배동향(50명 이상 재배농가의 戶當平均)

연도별 도 별	1981	1982	1983	증	감
	재배면적(A) (평)	재배면적(B) (평)	재배면적(C) (평)	B/A (%)	C/B (%)
京畿	111.5	132.3	173.3	118.65	130.99
江原	205.5	243.4	258.7	118.44	106.29
忠北	246.7	249.8	268.7	101.26	107.57
忠南	218.0	231.5	289.6	106.19	125.10
全北	131.6	123.9	160.2	94.15	129.30
全南	211.5	231.1	298.2	109.27	192.04
慶北	209.9	226.0	281.2	107.67	124.42
慶南	193.1	200.0	219.9	103.57	109.95
濟州	295.4	361.1	457.0	122.24	126.56
계	202.2	217.2	263.7	107.42	121.41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83農政輿論調查報告集」，1984，p.49.

의 민감한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적정생산 및 가격안정에 정책적 관심을 크게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階層別로 볼 때는 뚜렷한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연령층별로는 老年層일수록, 학력별로는 低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零細·小農層일수록 「收益性」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응답은 「價格動向을 보고」로서 18.3%로 나타났다. 이 역시 收益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收益성이 높기 위해서는 먼저 價格展望도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 20대에서, 학력별로 高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 「他作物보다 收益성이 높아서」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젊고 또한 上位階層이라 볼 수 있는 이들이 收益성도 중요시하지만 價格動向에 큰 관심을 보여 합리적인 意思決定을 하고 있는 반면, 이에 지나치게 민감한 나머지 投機化하여 過剩·過少生産에 의한 生産 및 價格波動을 유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自家消費 및 친척용으로」가 11.6%를

차지하고 있어 마늘이 一般食生活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 5·60대에 서, 학력별로 大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 大農層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單位當 生産量이 많아서」가 7.8%이었으며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 젊은 층일수록, 학력별로 高學歷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勞動力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해서」 7.3%, 「現金作物로 목돈마련에 좋아서」 5.9%, 「販賣가 용이해서」 4.4%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土質에 알맞아서」는 2.7%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은 土質이 다소 안 맞는다 하더라도 價格 및 收益성만 좋으면 재배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영농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이제는 地域的인 土質에 連繫 되지 않는 栽培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輸入抑制과 충분한 供給을 위해」가 1.0%로 나타나 농민들은 海外要因에 의한 價格波動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表 7 마늘 栽培面積(個人別 平均)

			단위: 평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평 균
재 배 면 적	는 <sup>1)</sup>	1983년	142	50	426	478	181	222	306	170	0	286
		1984년(예정)	206	50	460	505	145	329	343	201	0	318
		增 減 率(%)	45.1	0.0	8.0	5.6	△19.9	48.2	12.1	18.2	0.0	11.2
발 <sup>2)</sup>	발 <sup>2)</sup>	1983년	116	124	136	394	107	308	150	152	417	237
		1984년(예정)	141	163	181	452	135	357	152	155	466	274
		增 減 率(%)	21.6	31.5	33.1	14.7	26.2	15.9	1.3	2.0	11.8	15.6

註: 1) 응답자 221명  
2) 응답자 397명

### 2. 마늘의 栽培意向

〈表 7〉에서 83년과 84년의 栽培동향을 살펴본다. 여기서 現地通信員 個人的 재배면적의 경우 自家消費가 目的이라고 할 수 있는 50평 이하의 응답자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價格動向에 의한 栽培面積의 增減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50평 이상을 재배한 농가의 호당 평균 마늘栽培面積은 논마늘의 경우 83년의 286평에서 84년에 318평으로 11.2%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고 밭마늘의 경우 237평에서 274평으로 15.6%를 증가시킬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表 7〉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마늘의 價格이 나쁘지 않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作況에 큰 變動이 없는 한 84년에는 栽培面積의 증가로 인해 價格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 겨울의 극심한 寒波와 가뭄이 作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價格에 미치는 變動要因은 生産量 뿐만 아니라 流通過程도 크게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道別로 볼 때 도 全北의 논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을 빼고는 전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濟州에서는 논마늘을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마늘의 栽培面積 增減率(1984/1983)을 部落別로 平均을 보면 83년에 비해 통신원이 거주하는 部落의 84년 마늘栽培豫定面積이 증가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14명으로 14.4%의 증가를 전망한 반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7명으로 19.3%의 減少率을 전망,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部落의 경우도 個人的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향으로 나타났다.

### 3. 마늘의 販路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생산한 마늘을 주로 어디에다 판매하십니까?”로서 응답자 534명의 응답결과를 〈表 8〉과 같다.

전체적으로 道別로 나누어 살펴본 마늘의 販路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으나, 京畿道와 濟州道에서는 다소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늘의 販路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市場 또는 市場商人」으로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地方의 5일장 또는 常設市場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8 마늘의 販路

단위 : %

구	분	시장 또는 시장상인	產地 수집상	중간 도매상	시장청과 물시장	농협청과 물공판장	정부수매	식품가공업자	냉동창고 보관업자	계
평	균	62.5	21.5	10.1	3.0	2.1	0.4	0.2	0.2	100.0
경	기	92.9	—	3.6	3.6	—	—	—	—	5.2
강	원	76.0	20.0	4.0	—	—	—	—	—	4.7
충	북	64.0	20.0	14.0	—	2.0	—	—	—	9.4
충	남	58.2	35.2	4.4	1.1	1.1	—	—	—	17.0
전	북	70.6	7.8	9.8	11.8	—	—	—	—	9.6
전	남	42.4	35.9	15.2	1.1	4.3	1.1	—	—	17.2
경	북	63.2	14.2	15.1	1.9	3.8	0.9	0.9	—	19.9
경	남	76.6	11.7	2.6	6.5	1.3	—	—	1.3	14.4
계	주	21.4	50.0	28.6	—	—	—	—	—	2.6

다음에 「產地蒐集商」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商業的으로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產地에서 직접 대량으로 蒐集하려는 商人들에 의해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圃田 매매(발매)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市場 또는 市場商人」과 「產地蒐集商」의 경우를 道別로 보면 京畿의 경우 대량 소비처인 서울이 있어 전적으로 產地蒐集商을 거치지 않고 市場에 내다 팔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消費地가 먼 濟州의 경우는 주로 產地蒐集商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中間都賣商」 10.1%, 「市中 청과물시장」 3.0%, 「農協 청과물 공판장」 2.1%, 「政府收買」 0.4%, 「식품가공업자」, 「냉동창고보관업자」가 각기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 Ⅳ. 고 추

##### 1. 고추의 栽培決定要因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고추를 栽培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그 決定의 背景이 되는 要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表 9 고추의 栽培決定要因

단위 : 명 (%)

구	분	수익성이 좋아서	자가소비 및 친척 용으로	농가자 금회전에 좋아서	가격 동향 보고	지역의 기술 발전 되어	토 지 재 용이	농 기 가 용이	복 합 영 양 제 로	영 양 제 가 없 어서	타 지 배 면 적 이 넓 어 졌다	지역의 적 정 온 도 가 적 당 하다	운 작 을 편 이 하다	근 교 동 업 에 적 당 하다	군 남	계
평	균	286(41.8)	210(30.7)	79(11.5)	46(6.7)	18(2.6)	15(2.2)	8(1.2)	7(1.0)	7(1.0)	4(0.6)	4(0.6)	1(0.1)	685(100.0)		
연 령 별	20 대	3(18.8)	5(31.3)	1(6.3)	1(6.3)	1(6.3)	—	1(6.3)	3(18.8)	—	1(6.3)	—	—	—	—	16(2.3)
	30 대	34(35.4)	33(34.4)	10(10.4)	9(9.4)	3(3.1)	3(3.1)	1(1.0)	1(1.0)	1(1.0)	1(1.0)	—	—	—	—	96(14.1)
	40 대	153(46.2)	86(26.0)	40(12.1)	23(6.9)	9(2.7)	7(2.1)	3(0.9)	2(0.6)	4(1.2)	—	3(0.9)	1(0.3)	—	—	331(48.3)
	5·60대	96(39.7)	86(35.5)	28(11.6)	13(5.3)	5(2.1)	5(2.1)	3(1.2)	1(0.4)	2(0.8)	2(0.8)	1(0.4)	—	—	—	242(35.3)
학 력 별	국 졸	60(45.8)	46(35.1)	11(8.4)	5(3.8)	2(1.5)	2(1.5)	1(0.8)	2(1.5)	1(0.8)	1(0.8)	—	—	—	—	131(19.1)
	중 졸	107(39.9)	80(29.9)	42(15.7)	15(5.6)	5(1.9)	7(2.6)	3(1.1)	2(0.7)	3(1.1)	2(0.7)	1(0.4)	1(0.4)	—	—	268(39.1)
	고 졸	106(41.7)	70(27.6)	24(9.4)	26(10.2)	9(3.5)	5(2.0)	4(1.6)	3(1.2)	3(1.2)	1(0.4)	3(1.2)	—	—	—	254(37.1)
	대 졸	13(40.6)	14(43.8)	2(6.3)	—	2(6.3)	1(3.1)	—	—	—	—	—	—	—	—	32(4.7)
경 작 구 분 별	영 세 농	2(22.2)	4(44.4)	2(22.2)	1(11.1)	—	—	—	—	—	—	—	—	—	—	9(1.3)
	소 농	39(34.5)	46(40.7)	10(8.8)	8(7.1)	1(0.9)	2(1.8)	1(0.9)	1(0.9)	2(1.8)	—	2(1.8)	1(0.9)	—	—	113(16.5)
	중 농	148(42.5)	105(30.2)	39(11.2)	23(6.6)	10(2.9)	7(2.0)	4(1.1)	4(1.1)	3(0.9)	3(0.9)	2(0.6)	—	—	—	348(50.8)
	대 농	97(45.1)	55(25.6)	28(13.0)	14(6.5)	7(3.3)	6(2.8)	3(1.4)	2(0.9)	2(0.9)	1(0.5)	—	—	—	—	215(31.4)

表 10 高추재배면적이 늘어난 理由

區 分 項 目 別	道 別										計	年 齡 階 級 別					學 歷 別											
	京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國卒	中卒	高卒	大卒	
1) 수익성이 높다	17	12	14	20	18	27	31	28	—	167(40.1)	4	28	77	50	8	35	66	62	4	—	—	—	—	—	—	—	—	—
2) 自家消費用確保 및 子女親 知에게  공급	14	2	6	17	12	37	9	14	1	112(26.9)	3	18	54	32	5	19	48	40	5	—	—	—	—	—	—	—	—	—
3) 재배면적 確保	2	2	6	8	3	2	4	5	—	32(7.7)	2	7	13	8	2	10	14	7	1	—	—	—	—	—	—	—	—	—
4) 고추가격 安定	3	2	1	4	5	3	5	3	—	26(6.2)	2	5	9	9	1	4	10	12	—	—	—	—	—	—	—	—	—	—
5) 수확량이 많다	3	2	2	4	2	2	2	4	—	21(5.0)	1	6	7	6	1	6	5	7	3	—	—	—	—	—	—	—	—	—
6) 재배기술 향상	—	1	—	—	4	6	2	3	—	16(3.8)	2	2	9	3	—	1	8	7	—	—	—	—	—	—	—	—	—	—
7) 價格上昇 豫想	1	1	1	2	2	3	3	2	—	15(3.6)	—	3	6	5	1	3	6	5	1	—	—	—	—	—	—	—	—	—
8)  복합영농 지정 작목	1	2	—	—	1	3	1	1	—	9(2.2)	2	—	6	1	—	3	2	4	—	—	—	—	—	—	—	—	—	—
9) 換金이 용이함	1	—	—	—	1	—	2	1	—	5(1.2)	—	2	2	1	—	1	2	2	—	—	—	—	—	—	—	—	—	—
10) 주변의 재배면적 감소	—	—	—	1	1	—	3	—	—	5(1.2)	—	2	2	1	—	—	3	2	—	—	—	—	—	—	—	—	—	—
11) 타작물보다 人件費가 적게 든다	—	1	2	—	—	—	2	—	—	5(1.2)	—	—	5	—	—	—	2	3	—	—	—	—	—	—	—	—	—	—
12) 우량종자 보급	—	—	—	—	—	—	3	—	—	3(0.7)	—	1	2	—	—	—	1	1	—	—	—	—	—	—	—	—	—	—
13) 契約栽培	—	1	—	—	—	—	—	—	—	1(0.2)	—	—	1	—	—	—	—	1	—	—	—	—	—	—	—	—	—	—
計	42	26	32	56	49	83	67	61	1	417(100.0)	16	74	193	116	18	82	167	153	15	—	—	—	—	—	—	—	—	—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83 農政輿論調查報告集」, 1984, p. 22.

表 11 年度別 호당평균 재배면적 (51坪 以上 재배農家)

年 度 別		單 位 : 坪		
道 別		1981	1982	1983
京 畿		360	375	374
江 原		207	277	408
忠 北		736	668	617
忠 南		361	362	390
全 北		509	502	539
全 南		181	184	217
慶 北		456	457	481
慶 南		258	261	289
濟 州		126	161	178
平 均		379	378	401

表 12 年度別 고추 호당 평균 생산량 (51坪 以上 栽培農家)

區 分 道 別	꽃 고 추 (관)			진 고 추 (관)		
	1981	1982	1983	1981	1982	1983 豫想量
京 畿	156	156	205	265	266	302
江 原	159	124	299	225	336	511
忠 北	221	238	232	552	522	551
忠 南	147	136	172	201	195	262
全 北	127	126	142	461	485	555
全 南	32	58	61	121	195	258
慶 北	91	94	165	390	405	475
慶 南	146	138	178	150	183	225
濟 州	28	25	31	43	81	88
平 均	119	121	163	295	315	376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83 農政輿論調查結果報告集」, 1984, pp. 18-19.

서 응답결과는 <表 9>와 같다. 685명의 응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收益성이 좋아서」로서 전체의 41.8%로 나타났다.

이러한 栽培要因의 性向은 조사시기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83년 5월에 현지통신원 대상으로 실시한 「83년도 고추재배면적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表 10참조). <表 10>은 당시 고추재배면적을 늘린 응답자들의 「增加理由」를 분류한 것이다.

고추 역시 마늘과 마찬가지로 다른 經濟作物에 비해 「收益性」이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人の 基本食品의 하나인 김치를 비롯해 각종 料理에 들어가는 중요한 調味菜로서 판로가 비교적 넓운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收益성과 安定된 販路 등으로 그 栽培面積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일정 수준까지 이런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추의 地域特化 성향이 크게 감소하면서(表 11 참조) 單位當 生産量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表 12참조). 당시의 이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고추를 많이 재배해 온 忠北에서 全北과 慶北으로 주산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추를 많이 재배하지 않았던 江原과 全南에 재배기술이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산지인 忠北의 경우 81년 이래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당 생산량의 제고로 전체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고추의 일반적인 재배동향과 需要의 非彈力的인 構造 등으로 미루어 고추 역시 需要를 감안한 적절한 生産調整이 필요한 경제작물이라 하겠으며, 그러면서도 凶豊에 의한 生産起伏이 심한 식품이므로 流通改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아울러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收益性」의 응답 비중을 階層別로 볼 때는 두드러진 의미 발견을 할 수 없으나 연령층별로는 老年層일수록, 학력별로는 低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은 「自家消費 및 친척용으로」로서 30.7%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추가 一般家庭에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경작규모별로 零細・小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資金의 여력이 없는 이들 계층에서 必須食品인 고추를 우선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農家資金回轉에 좋아서」는 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端境期인 7~9月 사이에 자금압박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고추 販賣로 목돈을 쥐게 하며 學資金 및 營農費에 충당토록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경작규모별로는 零細農層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資金의 여유가 없는 계층에서 고추의 販賣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價格動向을 보고」 6.7%, 「地域의 土質에 맞고 技術蓄積이 되어」 2.6%, 「農閑期에 재배가 용이」 2.2%, 「複合營農團地 조성으로」 1.2%, 「代替作物이 없어서」, 「他地域의 재배면적에 대한 情報를 듣고」 자기 1.0%, 「輪作을 위해」, 「近郊農業으로 적당해서」 각각 0.6%, 「軍納」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고추의 栽培意向

<表 13>에서 83年 對比 84年の 栽培動向을 살



表 13 고추의 栽培面積(戶當平均)

		단위 : 평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평 균
재 배 면 적	1983년	324	417	611	280	290	205	427	208	140	333
	1984년(예정)	273	309	354	233	216	184	352	186	110	261
	增 減 率(%)	△15.7	△25.9	△42.1	△16.8	△25.5	△10.2	△17.6	△10.6	△21.4	△21.6

\* 응답자 778명.

퍼본다. 여기서 응답자인 현지 通信員 個人的 경우 自家消費가 目的이라 볼 수 있는 호당 재배면적 50평 이하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經濟的 動機」에 의한 栽培面積의 增減意思를 정확히 타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본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추의 栽培面積은 83년의 호당 333평에서 84년에 261평으로 21.6%를 감소시킬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3참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3년의 고추 價格이 크게 떨어진 데 기인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84년에는 作況에 큰 變動이 없는 한 栽培面積의 減少에 따른 다소간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道別로 볼 때도 고추의 栽培面積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主產地인 忠北의 경우 42.1%의 가장 큰 減少率을 보였는데 이는 이곳 농가들이 대부분 商業的으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

에 價格에 민감한 反應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고추의 栽培面積增減率(1984/1983)을 部落別로 平均해 보면 83년에 비해 통신원이 거주하는 部落의 84년 고추 栽培豫定面積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33명으로 20.5%의 減少率을 전망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4명으로 14.3%의 增加率을 전망해 전체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部落의 경우도 個別農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향이라고 하겠다.

### 3. 고추의 販路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생산한 고추를 주로 어디에다 販賣하십니까”로서 응답자 644명의 응답결과는 <表 14>와 같다.

고추의 販路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市場 또는 市場商人」으로서 전체 응답

表 14 고추의 販路

		단위 : %								
구	분	시장또는 시장상인	산지 수집상	중간 도매상	시중청과 물시장	농협청과 물공판장	정부수매	식품 가공업자	병동창고 보관업자	계
평	균	75.6	10.8	5.4	3.5	3.2	1.1	0.3	0.1	100.0
경	기	77.6	4.5	3.0	7.5	7.5	—	—	—	10.1
강	원	67.7	12.9	3.2	3.2	—	9.7	3.2	—	4.7
충	북	57.4	25.0	13.2	—	2.9	1.5	—	—	10.2
충	남	74.5	15.3	4.1	3.1	3.1	—	—	—	14.8
전	남	86.1	5.1	5.1	2.5	—	—	1.3	—	11.9
전	북	76.3	12.4	7.2	1.0	2.1	—	—	1.0	14.6
경	북	77.0	9.4	4.3	2.2	5.0	2.2	—	—	20.9
경	남	80.7	3.6	3.6	9.6	2.4	—	—	—	12.5
제	주	50.0	50.0	—	—	—	—	—	—	0.3

의 75.6%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마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판로를 地方의 5일장 또는 常設市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의존 비율이 마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產地蒐集商」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商業的으로 대량 재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產地에서 직접 蒐集하는 商人들에 의해 去來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市場 또는 市場商人」과 「產地蒐集商」의 경우를 道別로 보면 濟州의 50대 50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전부 市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濟州가 消費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中間都賣商」 5.4%, 「市中 청과물시장」 3.5%, 「農協 청과물공판장」 3.2%, 「政府收買」 1.1%, 「식품가공업자」 0.3%, 「냉동창고 보관업자」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 V. 양 파 과

### 1. 양파의 栽培決定要因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양파를 재배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그 決定의 背景이 되는 要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응답결과는 <表 15>와 같다. 이에 대한 응답자는 110명으로 마늘, 고추에 비해 栽培農民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배요인」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늘, 고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收益性이 좋아서」로서 전체의 50.9%에 이르러 마늘, 고추의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이것은 양파가 마늘, 고추에 비해 동일 면적에 대한 數量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그러나 收入面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파는 마늘, 고추와는 달리 「自家消費 및 친척용으로」 栽培를 하겠다는 응답은 없으므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파가 調味菜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自家消費보다는 販賣를 目的으

表 15 양파의 栽培決定要因

구 분		수익성이 좋아서	가격동향을보고	다른작물재배가망이	노동력이적게재배용이	판매가용이	타지역의재배에대한정보를듣고	목돈마련을위해	단경기출을목적으로	계
평 균		56(50.9)	13(11.8)	13(11.8)	9(8.2)	8(7.3)	7(6.4)	3(2.7)	1(0.9)	110(100.0)
연령별	20대	—	—	—	—	—	—	—	—	—
	30대	5(26.3)	1(5.3)	3(15.8)	3(15.8)	2(10.5)	3(15.8)	1(5.3)	1(5.3)	19(17.3)
	40대	31(59.6)	8(15.4)	5(9.6)	6(11.5)	1(1.9)	1(1.9)	0(0.0)	—	52(47.3)
	5·60대	20(51.3)	4(10.3)	5(12.8)	—	5(12.8)	3(7.7)	2(5.1)	—	39(35.4)
학력별	국출	10(62.5)	2(12.5)	3(18.8)	—	1(6.3)	—	—	—	16(14.5)
	중출	24(44.4)	6(11.1)	8(14.8)	4(7.4)	3(5.6)	6(11.1)	3(5.6)	—	54(49.2)
	고출	19(54.3)	4(11.4)	1(2.9)	5(14.3)	4(11.4)	1(2.9)	—	1(2.9)	35(31.8)
	대출	3(60.0)	1(20.0)	1(20.0)	—	—	—	—	—	5(4.5)
경작규모별	영세농	—	—	—	—	—	—	—	—	—
	소농	9(32.1)	4(14.3)	6(21.4)	1(3.6)	5(17.9)	3(10.7)	—	—	28(25.5)
	중대농	37(62.7)	4(6.8)	5(8.5)	7(11.9)	1(1.7)	3(5.1)	1(1.7)	1(1.7)	59(53.6)
대농	10(43.5)	5(21.7)	2(8.7)	1(4.3)	2(8.7)	1(4.3)	2(8.7)	—	23(20.9)	

表 16 양파의 栽培面積(個人別 平均)

		단위 : 평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평 균
재배면적*	1983 년	—	120	—	183	450	876	527	729	1,220	651
	1984 년(예정)	—	100	—	96	250	690	364	491	1,160	472
	增 減 率 (%)	—	△16.7	—	△47.5	△44.4	△21.2	△31.0	△32.6	△4.9	△27.5

\* 응답자 119명

로 栽培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20代에서, 경작규모별로는 零細農層에서 전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決定要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比重이 높은 응답은 「價格動向을 보고」와 「다른 작물재배가 마땅치 않아」로 각기 11.8%로 나타나 販賣에 主目的을 둔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밖에 「勞動力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 8.2%, 「販賣가 용이」 7.3%, 「他地域의 栽培面積에 대한 情報를 듣고」가 6.4%로 比較的 높게 나타나 自家消費가 별로 없어 販賣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양파의 特性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2.7%, 「단경기출하를 목적으로」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양파의 栽培意向

〈表 16〉에서 83年 對比 84年의 栽培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마늘, 고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평 이하의 小規模栽培를 하는 통신원들은 제외시켜 商業的 動機에 의한 精確한 增減意思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양파의 栽培面積은 83年의 재배농가 호당 651坪에서 84年에 472坪으로 27.5%를 減少시킬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앞 表에서 살펴본 것처럼 83年의 과일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폭락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84年에는 作況에 큰 變動이 없는 한 栽培面積의 減少와 생산감소로 인한 價格상승이라는 예년의 패턴을 쉽게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겨울의 극심한 寒波와 가뭄으로 인해 作況이 좋지 않아 價格의 上昇幅은 더욱 클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는데, 실제 최근 蒐集商들에 의한 產地에서의 物量확보를 위한 포전매매(밭매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道別로 보면 京畿, 忠北은 전혀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이들 地域에서는 양파가 재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밖의 道에서는 모두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파의 栽培面積增減率(1984/1983)을 部落別로 平均해 보면 83年에 비해 통신원이 거주하는 部落의 84年 양파栽培豫定面積이 減少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0명으로 39.8%의 減少率을 展望한 반면 增加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으로 20.0%의 增加率을 전망해 全體的으로 크게 減少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部落의 경우는 個人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폭의 減少를 예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양파의 販路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생산한 양파를 주로 어디에다 販賣하십니까”로서 응답자 119명의 응답결과는 〈表 17〉과 같다.

양파의 販路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

表 17 양파의 販路

단위 : %

구	분	산지 수질상	시장또는 시장상인	냉동창고 보관업자	중간 대상	시중청과 물시장	농협청과 물공관장	정부수매	식품 가공업자	계
평	균	31.9	26.1	17.6	16.0	5.9	1.7	0.8	—	100.0
경	기	—	—	—	—	—	—	—	—	—
강	원	—	100.0	—	—	—	—	—	—	0.8
충	북	—	—	—	—	—	—	—	—	—
충	남	25.0	66.7	—	8.3	—	—	—	—	10.1
전	북	—	—	—	25.0	75.0	—	—	—	3.4
전	남	44.0	16.0	12.0	24.0	—	4.0	—	—	21.0
경	북	25.7	34.3	20.0	14.3	2.9	2.9	—	—	29.4
경	남	35.1	16.2	29.7	10.8	5.4	—	2.7	—	31.1
계	주	40.0	—	—	40.0	20.0	—	—	—	4.2

는 것은 「產地蒐集商」으로서 「市場 또는 市場商人」의 26.1%보다 比重이 높은 31.9%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늘, 고추의 경우와는 달리 저장성이 약하고 일반적인 기호성이 적어 市場에 내다 팔기 보다는 蒐集商에게 파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17.6%의 「냉동창고보관업자」로 이 비율은 마늘, 고추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比重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가에 의한 貯藏이 어렵고 냉동창고 보관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따랐던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中間都賣商」도 상당히 높은 편인 16.0%, 「市中 청과물시장」 5.9%, 「農協 청과물 공관장」 1.7%, 「政府收買」 0.8%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가공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Ⅵ. 要約 및 結論

### 1. 要約

이상에서 農家所得의 안정적 保障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政策次元의 관심까지 모으게 된 주요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고추·마늘·양파 등 3가지 경제작물의 재배요인에 대한 생산농민의 意識, 販路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栽培動向 등을 意識調査의 次元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고추·마늘·양파 등 3가지 경제작물의 가장 주요한 栽培決定要因은 「收益性」이다. 다시 말하면 他經濟作物 또는 作物에 비해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재배가 결정되고 또 面積이 늘어났다.

② 價格動向에 극히 민감하고 따라서 가격의 등락은 당연히 다음 해의 栽培動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 1984년의 栽培豫定面積에도 作物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변동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현상을 빚은 양파의 경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③ 이들 세 경제작물의 販路는 마늘과 고추의 경우 「市場 또는 市場商人」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이 「產地蒐集商」인데 비해, 양파는 「產地蒐集商」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市場 또는 市場商人」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유통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農協의

系統出荷 비중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結 論

마늘·고추·양파 등 경제작물은 他作物에 비해 비교적 수익성이 좋아 價格動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할 마땅한 소득작물이 쉽게 개발되고 있지 않아서 그 어떤 경우이든 과잉·과소생산에 의한 가격파동과 投機化의 가능성을 항상 지닌 作物이요, 식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農民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전국적인 생산조정과 수급조절, 그리고 流通의 效率化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意識이다. 그러나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참여하는 生産農民들의 自律的인 決斷이 先行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자율적 決斷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政府나 관련 기관은 관련 統計의 정확한 조사파악, 필요한 情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공 등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모든 가능한 政策手段을 꾸준히 동원해야 할 것이

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조사는 조사대상자인 본연구원 현지통신원들의 전체 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상의 부득이한 편차 때문에 정확한 통계적 의미와 관련시켜 받아들이는 데는 限界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조사연구가 궁극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生産調整의 문제와 관련, 價格과 生産과의 연결 관계 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경향치적인 자료로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農水産部, 「1983년산 작물통계」, 1984.  
 農漁村開發公社, 「主要 備蓄農産物의 流通經路와 流通마진」, 1983. 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83農政輿論調查結果報告集」, 1984.  
 金敏男, 李成珪, 朴贊男,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意識,” 農村經濟, 제 6권제 4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12.  
 Tomek, Robinson, *Agricultural Product Pri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